



# 도의회 광장

2021  
**01**  
제69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239 | www.council.jeju.kr ISSN 2671-9754

02

특별법 전부개정 TF팀 출범



03

주요 이슈



04/07

2021 운영방향



08/09

생생 의정활동



12

사무처 소식



따뜻한 봄을 위해 끝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월 28일부터 이틀간 국회를 방문,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사진 왼쪽부터 문종태 예결특위위원장, 강철남 4·3특위위원장, 강연호 부의장, 오영훈 국회의원, 좌남수 의장, 송재호 국회의원, 정민구 부의장,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김대진 4·3특위부위원장)

## “4·3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도민과 함께 환영”

### 좌남수 의장 등 이틀간 국회서 1인 시위 총력

제주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이 2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이날 오후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그동안 길고 힘들었던 당정과 여·야간의 논쟁이 드디어 대화와 타협으로 매듭짓고, 본회의 통과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며 “희망의 소식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앞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원희룡 지사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로부터 국회통과 약속을 받아내는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문 채택, 전국 14개 시·도의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냈다.

또 4·3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 4·3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쏟아냈다.

좌남수 의장은 “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 통과”라며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제주4·3 완전해결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께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아픔의 역사가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만큼 도의회는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풀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 신년사

#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의 소중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아프고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신성한 기운을 가진 하얀 소의 해, 희망 가득한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슬픔과 아픔 없는 한해, 계획했던 일 모두 성취하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니다.

코로나19는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지속적인 의회혁신을 통해 일하는 의회 구현과 더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의 소중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겨울철 들어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일상의 삶 회복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더 큰 제주, 더 행복한 공동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로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제주특별법을 지금보다 앞선 고도의 차등적

분권을 담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4·3 완전해결에 힘을 쏟겠습니다.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여론조사를 관찰시켰듯이, 비자립로 확장, 송악선언, 드림타워 주차난과 카지노 문제, 풍력발전 등 도민갈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주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비롯하여 지방분권과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주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도의회-제주도, 코로나 극복·제주미래 공동 대응 '맞손'

###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 신속 지원 합의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19일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 신속 지원에 합의했다.

좌남수 의장과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가진데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들께 드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사회의 고통을 덜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좌 의장과 원 지사는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사각지

대에 놓인 도민들의 생존과 생계유지를 위해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좌남수 의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그 고통의 크기가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루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일찍 도의회, 도가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좌남수 의장은 “방역에서 경제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에는 의회와 도가 따로 없이 상생과 통합의 정치가 최상의 방법”이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기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조치를 하고 의회도 앞으로 도정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행방불명 수형자 무죄 선고, 환영 논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행방불명된 수형자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사상 첫 무죄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1월 22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일동은 “재판부가 행방불명 수형인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어왔던 행방불명인들의 '사망' 유무에 대해 모두 사망으로 판단하고,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과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드려 구형 즉시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군사재판으로 인한 생존수형인 무죄판결,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무죄 판결 등과 함께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어 청구한 사건들이 무죄로 판결됨에 따라 그 동안 연좌제로 고통받아왔던 유족들의 한을 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재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330여명의 행방불명 수형인 유족들의 재심 개시가 결정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초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 출범

### 도민복지 증진 위한 획기적 대안 마련 역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지방자치법까지 전부개정 되면서 제주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와 별반 차이 없는 평범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걸맞은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갈 것인지 갈림길에서 있다.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단장을 맡게 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과제발굴에 7개

의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이 참여하게 되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과제를 발굴하고, 또한 입법담당관실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범 의회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는 2021년 1월 7일부터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동안 각 위원회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를 도출하고, 의회 자체 보고회, 제주도와의 협의, 정점사항에 대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실시,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협약을 맺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자문 및 공동 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정책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 주요이슈

## 강성민, 송창권 의원, 2020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과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광복회가 주관한 2020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상'을 수상했다.

광복회는 친일잔재청산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역사정의실천인 정치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성민 위원장과 송창권 의원이 선정됐다.

강성민 위원장은 제주에서 일어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했다. 또한 일제 식민잔재 청산 전담부서 설치 촉구 및 제주4·3사건 진상규

명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송창권 의원은 지난 2019년 학교 내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데 이어 도내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를 하는 등 일제 식민잔재 청산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성민 의원과 송창권 의원은 한 목소리로 "일제식민잔재 청산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면서, "향후 제주도정이 제주 내 일제 식민지배로 인해 왜곡되고 오염된 유무형의 요소들을 온전히 복원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같이 힘을 보태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 제주도의회, 2020년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먼저 입법활동부문에는 최우수 강성민(이도2동을) 의원, 우수 강철남(연동을), 김경미(비례대표) 의원을, 행정감사부문 우수 강성의(화북), 고은실(비례대표), 김경학(구좌,우도), 김항국(용담1,2), 홍명환(이도2동갑) 의원을 선정했다.

그리고 최우수의원연구단체 제주지속가능발

전연구회, 우수의원연구단체인권과복지사회를 위한정책포럼을 선정했다.

올해 처음 시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은 '일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변호사, 기자 등 외부 전문가 20명이 심사를 진행하여 입법, 행정감사 활동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 고태순, 박호형, 송영훈, 현길호 의원, 제9회 우수의정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박호형, 송영훈, 현길호 의원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9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수의원 대상」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한 우수 의원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동 시상식은 매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전국적 규모로 진행되었으나, 지난 8회 시상식부터 코로나 19 감염방지를 위해 지역별 시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전수했다.

좌남수 의장은 수상의원들에게 "앞으로도 도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제주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 강철남 4·3특위 위원장, 제5회 청소년희망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여성가족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제5회 청소년희망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청소년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의 삶을 바꾼 조례·법률·정책을 펼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1,000인의 투표단이 직접 선정하고 시상하는 「청소년희망대상」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9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국 국회의원,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청소년희망대상 심의위원회의 1차 심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조례 제·개정 추진 및 청소년 관련 정책과 활동

등을 검토했고, 2차 심사로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국 청소년 1,0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투표를 통해 최종수상자를 선정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했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청소년 희망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2021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운영방향

### 의회운영위원회

## 도민을 섬기는 의회 운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장

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김용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쁨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0년은 연초의 설렘과는 달리 코로나 19 감염 확대로 인해 도민 모두가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제주경제에 실질적 타격으로 이어졌고,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은 그 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 한 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코로나 19와 같은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출석과 발언, 표결과 답변까지 모두가 능토록 하는 비대면 원격 회의 규정을 마련해 재난 상황시 의회의 업무정지 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처가 도의원과 상임위원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무리한 업무추진이나 잘못된 예산집행은 없는지,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회혁신 방안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새해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기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에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새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희 부위원장



강성의의원



김희현의원



부공남의원



안창남의원



양영식의의원



오대익의원



이상봉의원



이승아의의원



현길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 코로나19 극복 위한 적극 행정 펴야



이상봉 위원장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지난 2020년에 이어 2021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도민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며, 제주도정에도 행정의 운영과 집행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변화된 환경에 행정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부서가 기획, 예산, 조직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 업무계획이 과연 기존의 업무관행을 깨고 새롭게 변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2월 업무보고 때 자세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및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 그리고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도 함께 모색해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성 예산 삭감 명목 하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예산 및 도내 민간사회단체들의 자발적 공익활동과 관련한 예산들도 대폭 삭감하여 민간영역의 활동이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포스트코로나19와 관련된 활동을 위주로 도민들이 코로나19를 스스로 극복하며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적극 행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 부위원장



강성민의의원



강철남의원



고현수의의원



문종태의원



이경용의원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정 실현



양영식 위원장

신축년 새해 도민과 함께 안전한 제주, 사각지대 없는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어느해 보다도 힘들었던 격변의 한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2021년 신축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지 정확히 1년이 되었지만, 최근 까지도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5인 이상 집합 금지,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 등으로 도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이 개발되어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백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차질없이 준비되고 예방접종 관리체계가 선제적으로 잘 구축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그리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미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에 대한 대비 등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건강 안정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부위원장



고은실의원

그리고 최근 입양아동 정은이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살펴보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노인학대 문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전용 쉼터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사후 관리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마다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재난관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찰법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기능 축소와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도민의 안전한 제주,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김대진 의원



이승아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 지속가능한 제주 가치 실현 위해 총력



강성의 위원장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1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의료진 및 방역현장의 관계자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고, 일상이 제한되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교육현장까지 그 피해는 감히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 고통의 터널을 함께 견뎌주셔서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11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제주의 다양한 현안과 마주하면서 도민의 눈높이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제주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이하면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는 도민의 삶 현장 구석구석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을 살피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는 그동안 개발중심의 성장주의에서 파생되었던 주거환경문제, 도로·교통 및 상하수도문제,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생활밀착형 난제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 방안을 찾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 곳곳을 뛰어다니겠습니다.

도민이 가장 우려하는 분야가 “생활 쓰레기 문제”라는 보도가 있듯이 생활쓰레기 줄이는 방안부터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관리 등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더 많은 도시공원의 조성과 대중교통체계의 불합리성 개선 등 도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 집중하겠습니다.

지역 내 기반 시설에 대한 불균형문제, 환경과 개발에 따른 갈등 문제 등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제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살피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세계중심의 환경도시라는 제주비전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2021년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는 더 나은 내일의 제주를 위해서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며 도민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훈배 부위원장



강충룡 의원



고용호 의원



김희현 의원



송창권 의원



양병우 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뉴노멀 시대의 문화관광을 준비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장

2021년 새해입니다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한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은 도민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입니다.

한 자리 수였던 제주의 코로나 확진자는 가파른 속도로 500명을 넘기면서 제주가 더 이상 K 방역의 모범인 코로나 청정지역이 아니며,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소비심리는 물론 고용도 위축되면서 도민의 삶과 제주경제는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한 제주경제 성장률은 -3%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도내 문화예술과 체육행사 취소·축소는 문화예술인의 생계위협은 물론 도민들의 코로나 블루마저 걱정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복과 성장동력 또한 문화관광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종식 이후 가장 하고 싶은 국민여가활동이 여행, 문화, 스포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문화관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올해 저희 상임위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제주 문화관광의 코로나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를 대비한 준비에 매진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의 문화향유 진작과 문화예술인들의 피해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코로나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개발 지원 확대도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코로나로 달라진 관광트렌드에 맞춰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청정과 안전, 웰니스, 언택트 등 국내외 관광시장의 회복을 준비하고 관광사업체의 경영지원, 관광일자리 창출, 관광사업체 양극화 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건강증진을 위해 도민이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복지 실현과 생활체육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전지훈련 유치 지원을 강화해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2021년은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제주 문화관광정책을 정상화시켜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는 성장동력 원년의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영희 부위원장



김항국 의원



문경운 의원



박원철 의원



박호형 의원

## 농수축경제위원회

## “1차 생명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최선 다할 터”



현길호 위원장

2021년 신축(辛丑)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격히 경색돼 위기 대응을 위한 응급처방에 주력했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월동채소 하차 경매, 제주산 농산물 해상물류비 확보, 전국 최고인 농·어가 부채 문제, 한·일 어업협상 지연과 제주 연·근해에서 발생한 어선 해양사고로 인한 어업인의 안전문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악취문제,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많은 제주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사항 등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적재적소에서 짚어보고 대안도 마련한 한 해라고 봅니다.

1차 산업은 제주 경제의 생명산업으로써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입니다. 농어업인의 경쟁력과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과 안정적인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 한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1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내실화를 위해 몇가지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첫째, 제주농가 부채 위험해소를 위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둘째, 가축분뇨 문제 등 축산분야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천혜의 제주 자연환경과 함께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셋째, 신항만 건설 추진과 더불어 지역별 연안항을 활성화하여 지역 생산물 유통과 물류 체계 구축을 거점화 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6차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 어촌지역의 유희어항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부흥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넷째, 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연근해 어선 자동화시스템 보급 확대, 수산물 유통 및 생산량 조절을 통한 수산물가격안정, 양식장 경영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 양식 도입, 마을어장을 이용하는 해녀안전과 복지향상 및 오염이 심각해지는 연안해역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회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난해 나라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속에 민생경제가 어려웠고, 2021년 제주 지역 경제전망에 따르면 체감경기가 지속 하락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맞춤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창업 생태계 지원, 일자리 안정화 지원 등 지역 경제 내실화 정책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제주 경제가 성장 조정을 겪고 있음에 따라 구조적·질적 체질 개선에 대한 요구에 맞게,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혁신 성장동력 마련 등 도민이 공감 할 수 있고, 앞으로 산업간 균형발전 등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을 위한 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먼저 살펴 1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경제의 내실화 추진에 각종 정책과 지원 사업들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정은 부위원장



강성균 의원



고태순 의원



김경미 의원



김용범 의원



송영훈 의원

## 교육위원회

## 교육 자치 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



부공남 위원장

작년 한 해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갑자기 던져온 미래교육의 화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문제야말로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학력격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교육불평등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부채질할 것입니다.

그만큼 제주의 공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기존의 교육행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안목을 제시하여 제주미래교육 비전을 중심으로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이 제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특별자치도 15년이 되는 해로써, 선도적인 교육자치의 모델인 제주의 교육자치 15년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제주발 교육자치의 방향성을 체계화하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하여 제주의 인재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체제를 마련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도의회와 제주도정, 교육청이 함께 하는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의 동력을 마련하여 제주교육자치도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교육의 3주체에 열려있는 교육행정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가 그 중심에서 토론회, 포럼, 간담회 등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전문가들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김창식 부위원장



강시백 의원



강언호 의원



김장영 의원



김태석 의원



오대익 의원



정민구 의원



한영진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의 사각지대 없애고 도민 혜택 늘일 것



문종태 위원장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신축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누구나 새해에는 신종감염병 코로나의 종결을 희망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상실된 작년에는 필수노동자라는 신조어가 새로 탄생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상실되어서야 우리의 일상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노고와 어려움을 이제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주변을 보다 경계하도록 만들었으며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이 상실되는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재정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버린 시계와 같이 이전의 세입 증가폭과는 현저한 괴리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대두되었던 지난 한 해 동안 2차례의 추경심사와 금년도 본예산 심사를 이끌며 설 새 없이 달려 왔습니다. 세입절벽에 이르러 예산의 민생경제용 예산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세출예산을 확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충분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이번 지방채 발행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한 해는 재정 투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향후 추경을 통해 보다 시급한 곳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절벽과 코로나 극복이라는 큰 과제 안에서도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 없이 도민 혜택으로 전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상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의원

강충룡 의원

고용호 의원



김경학 의원

김대진 의원

김창식 의원

김태석 의원



김황국 의원

박원철 의원

양병우 의원

이경용 의원



이승아 의원

임정은 의원

## 4·3특별위원회

## 새로운 화합을 통한 4·3의 역사는 세계적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



강철남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대 의회부터 4·3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위의 구성 목적은 4·3특별법 통과를 통하여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통곡의 한을 풀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유족을 지원하고자 하는 위원회입니다. 2021년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 및 전국지방의회 네트워크 체계구축, 유족복지확대, 4·3전국화 및 세계화 교육확대,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중

양정부와 국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국과거사 지역의회 및 지방의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족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유족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복지영역확대 방안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4·3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계승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 교육을 통해 4·3의 평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과 도내 대학과 협력하여 세계 각국의 청년 및

대학생들이 평화를 공유할 수 있는 4·3아카데미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3의 자원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수 학술지원체계 구축하여 신진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4·3특별위원회는 4·3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이며 질곡의 세월을 살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역사임을 인식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도모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계승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 코로나특별위원회

## 포스트코로나시대 제주 미래 담론 연구



강성민 위원장

곧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보낸 시간이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래 일상이 어땠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과 정책 또한 그저 원래대로 복구하여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행정의 변화, 정책의 변화를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출범한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특위는 부서 업무보고 등 회의(3회), 토론회(6회), 택배노동자 등과의 현안 간담회(2회) 등의 추진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

내 소상공인을 위기로 모는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철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현재 공공 보류를 유도해 냈습니다. 또 도민을 외면한 골프장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감면조례를 포함하여 3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1년의 활동기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남은 6개월 동안에도 열심히 달려 나가 보고자 합니다. 우선 신종 감염병 출현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후위기 상황에 걸맞은 정책 준비,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의 이익 지역 환원 방안, 필수노동자 대상 지원책 마련 등 고용·관광·

문화·소공상인·산업계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및 영향이 발생한 사회영역별로 당사자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정책대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현안대응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제주에 대한 미래담론을 연구하여 도서로 발간함으로써 도민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새로운 정책기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계신 제주도민께 희망을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생생 의정활동

### 의원연구모임

## 의원연구모임 '사회적경제 포럼' 창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사회적경제 포럼'이 지난해 12월 17일 창립됐다.

사회적경제 포럼은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창립식을 열고,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을 대표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을 부대표로 추대했다.

포럼에는 김경미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학(제주시 구좌읍·우도면)·김대진(서귀포시 동홍동)·박원철(제주시 한림읍)·정민구(제주시 삼도1·2동)·현길호(제주시 조

천읍) 의원과 정의당 고은실(비례대표·무소속), 양병우(서귀포시 대정읍)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포럼은 앞으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미래세대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대표로 추대된 김경미 의원은 "제주사회에 사회적경제를 더욱 확산 시키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주관광 미래성장포럼 출범

### 대표 오영희, 부대표 양병우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새로운 의원연구단체인 '제주관광 미래성장포럼' 창립총회를 개최, 대표 오영희 의원, 부대표 양병우 의원 등 임원을 선출하고, 회칙 제정, 연구사업 계획 승인 등의 안건을 소속 회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주관광 미래성장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주경제의 기반산업인 관광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미래지향적 융복합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조사 및 신규 정책 발굴, 법 제도적 기반마련 등을 위해 새롭게 창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포럼을 제안한 오영희 대표(국민의 힘, 비례), 양병우 부대표(무소속, 대정읍)와 함께 고태순(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이경용(국민의 힘, 서홍·대륜동), 김창식(교육위, 제주시 서부), 강연호(국민의 힘, 표선면) 6명이 함께 활동할 계획이다.

오영희 대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제주도민이 행복한 제주사회 구현을 위해 미래지향적 융복합 관광산업의 혁신과 육성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형 의원연구단체로 '제주관광 미래성장 포럼'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제주유치 전지훈련, 정책방향 개선

### 제주체육진흥포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체육진흥포럼 대표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전지훈련 유치실태 조사를 통해 본 정책방향 개선 토론회"를 1월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지난 12월 진행된 <전지훈련 유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도와 행정시의 체육 담당부서와 제주연구원 최영근 박사가 참여해 코로나 시대 체육산업으로서의 경제적 극대화 방안으로 전지훈련에 대한 유치와 체계적인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전지훈련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수차 논의되었으나, 정책의 변화는 지금까지 미진한 상황이었다. 지난 겨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지훈련에 대한 구체적 정책수립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간담회를 주관하는 이승아 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방안으로서 전지훈련을 들 수 있다. 제주는 전지훈련지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나, 행정은 체계적인 전지훈련 유치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다"고 하면서 "타지역과 비교할 때 유치정책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 제주신화월드 대규모점포 사태 관련 성명

### 민생경제포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과 연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신화월드 대규모점포 등록 수리 관련 사태와 관련하여 제주도정의 사과와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월 20일 발표했다.

이번 제주신화월드 대규모점포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문종태 의원은 "이번 대규모점포 등록 절차에 있어 유통상생발전법 상 지사의 책임으로 수립해야 하는 시행계획을 제때 수립하지도 않는 등 제주도정의 유통정책의 허술함이 이번 사태를 초래하게 된 근본 원인으로, 대규모점포의 허가권자가 서귀포시장이긴 하나 법

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으로 사실상 이번 문제를 결자해지할 주체는 바로 제주도정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원희룡 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2일 서귀포시와 램정제주개발 측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램정 측에서는 대규모점포를 직접 운영·관리할 운영사의 선정과정이 추진 중으로 지금 시점에서 쇼핑아울렛 제한 등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 수정 등은 곤란하나, 제주시 상인단체와의 만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2021년 정기총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 부의장)는 1월 27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제주특별법과 도의회가 제·개정하는 조례 등 관련 입법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제주의 특별자치성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단체로서 정민구 부의장,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 강성균 의원, 김경미 의원, 김대진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단체의 대표인 정민구 부의장은 “우리 의원연구단체가 지난해 설립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곤란했었다.”면서,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정기총회에서는 2020년 활동결과 및 2021년 활동계획, 연구용역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향후 각종 정책간담회 및 특강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조례소개

## 1,000명 모이면, 일반 주민도 조례 제·개정 가능 이상봉 위원장, 주민투표 청구 기준 하향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주민권리 확대와 참여 제고를 위해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폐기 청구에 관한 조례」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투표 및 조례 제·

개정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낮추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투표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12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연서 주민 수는 46,483명이 되는 바, 이를 특별법의 최저 기준인 50분의 1로 조례를 개정하여, 연서 주민 수

를 11,155명으로 낮추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제29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20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연서 주민 수는 2,782명이 되는 바, 연서 주민 수를 1,012명으로 낮추도록 그 기준을 '550분의 1'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 토론회·간담회

##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월 19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교통안전 봉사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영희 의원은 “현재 교통 봉사활동이 경찰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지원에 한계가 있어 제주도 차원에서도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에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대상 및 지원 활동, 지도·감독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회원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학승 도청 교통항공국장, 김성년 (사)제주도녹색어머니연합회장, 김승호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제주지부장, 부영숙 제주여성교통봉사대장 및

관계자분들이 참여해 교통안전 봉사단체들의 봉사활동에 관한 현실과 대안 등의 전반적인 의견을 나눴다.



## 한파 및 폭설 피해현장 방문, 신속한 지원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속 위원들과 함께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지속된 한파와 폭설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제주 동부지역(구좌읍, 성산읍)의 피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농작물 피해 현장방문은 지난 주 부터 시작된 한파와 폭설로 인해 월동무 언 피해 발생이 집중된 구좌읍과 성산읍 지역을 선정하여 방문하게 되었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과 의원들은 한파와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한 위로와 함께 농작물 및 시설피해 접수·확인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들을 격

려하면서, “농업인들이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 신고를 못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며,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행정의 다각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특히, “기상·지온도가 높은 1차 산업의 특성상 재해보험 등의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여야 하며, 제주지역의 재해 유형 및 강도에 적합한 보험 연구개발 및 기존 재해보험 제도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의정활동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함께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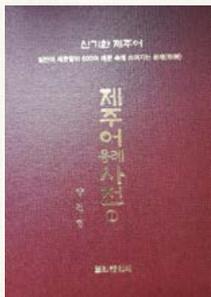
신기한 제주어 ①

어름쓸다  
(동사) 쓰다듬다

<예문>

“날도 열고 뚝뚝하게 입영 땡겨사 고뿔 들리지 안 혼텐 흘데다”  
 “누게 경 잘 곱아니. 아 가이 말가? 가인 신자난 경 곱아졌주. 겐디 신자삼춘 남순 웃인 잔 생인고라 눈 팡팡 오는 날 가남에 웃이 건드렁이 출련 ‘남수각 하늘길 벽화거리’를 땡기단 감길 복삭 걸련 못준덤서라. 몰르주! 신자가 주꿋디 강 어름쓸어주민 감기가 낮을티사”

‘도의회 광장’에서는 2021년부터 양전형 님의 ‘제주어용례사전①’에 실린 제주말이 600여 예문 속에 쓰이는 용례를 게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얼다, 올다: 춥다  
 뚝뚝하다, 뚝뚝하다, 뚝뚝하다, 뚝뚝하다: 따스하다  
 땡겨사: 다녀야  
 고뿔, 곱불: 감기  
 혼텐: 한다고  
 누게: 누구  
 곱아니: 말하더냐

들리다: 병에 들다  
 말가: (그 애를) 말하는 거니?  
 곱아졌주: 말 할 수 있는 거지  
 ~기(첨사), 겐디: 그런데  
 웃인: 없는  
 생, 생, 상: 모양  
 생인고라: 모양인 듯  
 팡팡: 평평  
 가남에 웃이: 어떤 일을 처리할 능력도 없이  
 건드렁이 출리다, 간드렁이 출리다: 시원 상쾌하게 차리다  
 복삭: 마구, 많이  
 못준디다: 못견디다  
 못준덤서라: 못견더 하고 있더라  
 몰르주: 모르지  
 주꿋, 주긋, 저꿋, 저긋, 저긋, 제긋: 결  
 낮을티사: 나올런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 기	주요처리안건
계	총136일	총136일	
2월	제392회 임시회	2.22.(월) ~ 3.4.(목)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섭단체 대표 연설</li> <li>결산검사위원 선임</li> <li>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li> <li>조례안 등 안건 처리</li> </ul>
3월	제393회 임시회	3.17.(수) ~ 3.24.(수)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안 등 안건 처리</li> <li>현장방문 등</li> </ul>
4월	제394회 임시회	4.20.(화) ~ 4.30.(금)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정 및 교육행정질문</li> <li>조례안 등 안건 처리</li> <li>현장방문 등</li> </ul>
5월	제395회 임시회	5.20.(목) ~ 6.1.(화)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회 추가경정예산안</li> <li>조례안 등 안건 처리</li> <li>현장방문 등</li> </ul>
6월	제396회 제1차 정례회	6.15.(화) ~ 6.30.(수)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산 및 예비비 승인</li> <li>조례안 등 안건 처리</li> <li>현장방문 등</li> </ul>
7월	제397회 임시회	7.14.(수) ~ 7.21.(수)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안 등 안건 처리</li> <li>현장방문 등</li> </ul>
9월	제398회 임시회	9.7.(화) ~ 9.14.(화)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안 등 안건 처리</li> <li>현장방문 등</li> </ul>
10월	제399회 임시회	10.12.(화) ~ 11.3.(수)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사무감사</li> <li>조례안 등 안건 처리</li> <li>현장방문 등</li> </ul>
11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11.15.(월) ~ 12.15.(수)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li> <li>2022년도 예산안</li> <li>조례안 등 안건 처리</li> <li>현장방문 등</li> </ul>
12월	제401회 임시회	12.17.(금) ~ 12.23.(목)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회 추가경정예산안</li> <li>조례안 등 안건 처리</li> </ul>

청탁금지법 Q&A



Q

B는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관내 사회복지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병역판정검사장 군의관 C에게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 모르게 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1호는 ‘병역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가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B가 자녀 모르게 청탁을 하였고, 자녀 A는 아버지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녀 A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군의관 C는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군의관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정후원금

정성! 치후원금이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정치후원금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문화예술과 체육에 지원해야 하는 이유



2021년 예산 역시나 문화예술과 체육분야를 희생시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에서 문화예술, 체육, 관광분야에서 329억원 상당이 감액되었는데, 다시 2021년 예산에서도 32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추경에서는 모든 도민에게 주었던 제주형긴급생활지원금이 명분이라도 뒀지만, 2021년은 팬데믹 블루치유에 보태져야 할 문화예술·체육예산을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특별회계의 부족분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과 체육은 특기 있는 기예능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여가생활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생활체육과 생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체육활동은 건강한 체력과 존중과 안전이 함께 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있고, 문화예술은 향유와 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치유, 정신적 풍요를 제공해준다. 문화예술체육의 지원은 향유와 활동 속에 건강한 사회와 경제 활성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든 지방이든 문화체육예산은 전체예산의 3~4%에 불과해도 지역사회를 생동감 있고, 정서적 안정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특히 문화예술예산은 경제적 파급효과로 산출되지는 않지만, 사회의 음지를 치료하는 촉매제로 사용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줄이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데 있다.

제주 역시 문화예산은 4% 수준이지만 2016년도 들어 역대 최초로 1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였다. 그만큼 문화시설 인프라들도 늘어났고, 전문예술인들만이 아닌, 동호회 등 아마추어 문화인들이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높은 의식수준을 높여주었다.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국민수준은 문화유산의 보전을 통한 누림으로 문화관광, 예술관광으로 지역의 부가 가치를 높이지만, 역사가 짧은 신생국가일수록 사업구조로서 문화산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다.

이런 점을 감안 한다면, 제주는 문화관광이 주도하는 사회이다. 탐라를 품은 2만년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독특한 섬 문화와 그 문화를 감싸는 자연경관이 관광콘텐츠로 자리잡아 사회경제적 매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박호형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감귤정책 추진, 징검다리 필요하다



'징검다리'는 말이 있다. 옷이 해지기 쉬운 부분이 쉽게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다른 천을 대고 덧성듬성 꿰맨다는 뜻이다. 여기서 유래된 것이 징검다리이다. 사람의 다리가 잠깐 징그는 잠정적인 다리로 한 번에 넘어갈 수 없는 공간을 손쉽게 건너도록 연결의 역할을 한다.

징검다리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요즘 유난히 맥을 못 추고 있는 감귤가격 때문이다. 감귤가격 하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우선 생산량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4,800ha에 이르는 감귤원을 폐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잉생산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한 농산물 시장개방과 2004년 한·칠레 FTA를 기점으로 한 본격적인 과일류의 수입은 고스란히 감귤과 경쟁이 되었

고,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정부에서 FTA기금을 조성하여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내년에는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원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내년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면 시장개방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대책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감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귤당도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노지감귤 당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9.9브릭스로 조사되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9.4브릭스로 나타났다. 산함량도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당도 하나만 놓고 볼 때 노지감귤의 경쟁력이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당도의 결정에 있어서 날씨도 중요하지

만, 감귤원의 재배환경 개선과 품종 갱신 등 농업인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행정의 지원과 농업인들의 노력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품종갱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은 상당하다. 당장에 몇 년 동안 수입이 없는 상황을 보내야 하니, 필요성에는 동감하면서 선불리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에서 추가적으로 농자재 지원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접을 통한 품종갱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독묘의 육성·보급을 병행한다면 바이러스 감염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감귤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농업인들이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필요하다.

송영훈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신뢰사회



매년 영국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에서 세계 각국의 번영지수를 발표한다. 번영지수의 평가 지표는 경제, 기업환경, 정부,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안전과 안보, 교육, 보건, 자연환경 등이다. 2019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로 종합순위 28위로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특히 교육 2위, 보건의 4위로 전 세계적으로 월등하다. 기업환경, 안전과 보건 등도 30위 안팎으로 비교적 상위권이라 할 수 있다. 발표할 때마다 낮았던 개인의 자유, 자연환경, 사회적 자본을 보면 2018년 70위 밖에 있었던 개인의 자유는 46위로 큰 변화를 보였으며, 자연환경은 91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러있다. 다만 사회적 자본은 142위로 최하위이다.

세계적 월간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사회적 자본,

특히 신뢰에 대한 실험 결과를 종종 발표한다. 2001년 세계 주요 도시에 50달러와 연락처가 들어 있는 지갑 200개를 뿌리고 그 중 얼마나 돌아오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200개중 116개인 58%가 회수됐으며, 북유럽 국가들은 70% 회수율을, 이탈리아 남부 지방은 거의 돌아오지 않아 그 사회의 신뢰 수준을 그대로 보여줬다.

신뢰는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사회적 자본으로 개인과 개인의 신뢰, 사회 제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 그에 따른 시민 참여와 협력 등이다. 그런데 한국이 2019년 세계 167개국 중 사회적 자본이 142위로 최하위라는 것은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작년 11월 초에 발표한 'OECD 주요국 정부신뢰도 순위'에서도 34개국 가운데 22위를 차지했다. 이 수치를 보면 대한민국은 대단히 심각한 불신사회이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매우 신뢰가 높은 사회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기의무적 성격이 강하며, 상대방이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신뢰가 단속과 감시라는 비용 절감과 더불어 방역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편한 다수의 상황으로 인해 신뢰가 깨질 수 있는 우려성은 잠재해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을 함께 넘기고 있음이다. 이러한 신뢰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개인이 서로 투명하고, 정의롭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바탕이 될 때 이뤄진다. 그렇게 쌓아 온 신뢰는 결국 위기를 극복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에 매우 중요한 축으로 작동된다.

김경미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여성의 안전, 제주형 안전뉴딜과 연계 필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유형도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내에서도 여성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성추행·성폭행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제주도의 안전 분야 성평등 지수는 17개 시·도 중 12위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제주도는 여성안전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 여·아동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밤길 안전을 위한

가로등 정비와 조도 개선,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지원 강화, 폭력 예방 성인지 인권 교육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선적으로 해당 사업들의 효과성 점검을 토대로 사업을 정비하거나 확대하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 실행 주체인 지자체 부서의 다양성과 분절성도 정책 체감도와 효과성으로 연관될 것이다. 때문에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민·관, 민·민간의 간의 연계/협업이 필수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한국형 뉴딜(그린, 디지털, 안정망 강화)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필자도 지난해 회기 때 제주형 뉴딜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하면서 제주형 뉴딜 종합대책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우

리나라는 물론 제주도의 경우 안전망 강화는 뉴딜의 가장 기본이며 지역사회의 근간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안전한 제주, 여성이 안전한 제주가 실현될 때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도 갖추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여성의 실질적 안전을 위해서는 주요부서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수행을 토대로, 체계적·종합적 시스템을 구축과 관련 사업들을 예방-보호-처벌 시스템 단계별로 운영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제주여성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시스템 구축과 실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나갈 것이다.

이승아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의회사무처장 문경진 지방이사관 승진 발령

총무담당관 좌정규·의사담당관 현창훈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4일자로 의회 사무처장에 문경진 지방부이사관을 지방이사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문경진 신임 의회사무처장은 제주시 부시장, 정책기획관, 교통항공국장을 거치며 탁월한 소통 능력을 통해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과 협치에 책임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1월 15일자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도의회는 총무담당관에 좌정규 의사담당관을, 의사담당관에 현창훈 제주도청 교통정책팀장을 각각 승진 임용했다.

도의회는 이어 경리팀장에는 김정수 현

공보팀장을, 기록팀장에 양경저 노형동장, 정책분석팀장에 현계진 서귀포시 마을협력과장을 각각 임용하고, 공보팀장에는 현길환 민원팀장을 전보 발령했다.

김애숙 총무담당관을 비롯해 고현주(사무관, 강민주(행정주사)는 제 주도로 진출했다.



문경진 사무처장



좌정규 총무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 제주도의회 - 제주도청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에서는 2월 2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의 제주 해양수산 현안 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도내 마을어장의 수산자원 보호 및 각종 해양안전사고 예방, 구조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제주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제주도청과 제주해경청이 현안에 대한 정책공유와 협업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책간담회 개최에 앞서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각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해양안전사고에 더욱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송영훈 의원이 개정 발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조 참여자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각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수난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더 큰 제주, 더 행복한 제주공동체 구현

의장님 신년사 등 온라인 시무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특별대책 연장에 따라, 2021년도 시무식은 별도 개최하지 않고 1월 4일 오전 10시 의장님 신년사를 자체 채널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좌남수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하얀 소가 가져다주는 좋은 행운에 힘입어

힘들었던 슬픔과 아픔을 모두 잊고 계획한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보람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제2공항 갈등 해소, 제주4·3 완전한 해결, 제주특별법의 자치권확보, 제주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 등 코로나 위기속에서도 제주현안 해결을 통해 더 큰 제주 더 행복한 제주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원, 4·3 사진·시화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강철남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연동을)에서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달간 4·3평화재단, 유족회, 제주작가회의,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도의회 의사당 로비에서 「사진으로 보는 4·3 그 진실과 마주하다」 4·3 사진·영상·시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시화전은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제주도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사진·시화전에는 4·3진상규명운동, 유해발굴과정, 희생자 아픔을 담은 사진 50점, 4·3의 생생한 기록을 담은 영상,

시화전 20점 등 총 70여점이 전시된다.

강철남 위원장은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 1인 시위, 시도의회 연대, 국회 건의문 전달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4·3사진전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제주도민의 염원을 담아 여야 국회의원, 전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를 도내외에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행사 시작 당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오임종 4·3유족회장, 강철남 4·3특별위원회 위원장, 기념 테이프 컷팅식을 가졌다.

## 4분기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4분기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를 통해 최우수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우수에 행정자치전문위원, 장려에 민원홍보담당관을 각각 선정했다.

제주도의회는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및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방송매체 홍보자료 제출, 언론 보도실적, 언론 기고, 홈페이지 게시 판 자료 등록 등의 평가항목을 놓고 항

목별 배점기준에 의한 점수에서 순위를 가리고 있다.

지난 3분기 평가 최우수 행정자치전문위원, 우수 보건복지전문위원이 선정됐다.

오태현 민원홍보담당관은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제를 통해 의정활동 적극 홍보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며 "내년에도 도민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의정구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를 구성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도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아래와 같이 도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합니다.

기간 : 2021. 2. 22.(월) ~ 3. 19.(금)

접수 : 의회 홈페이지 의견수렴 배너 및 이메일(obama2@korea.kr)

문의 : 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064-741-2363)